

독서 마라톤 '책 4만 2,195쪽 읽기' 도전한 송미씨 가족

“자녀에 물려 줄 최고 재산은 독서 습관”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송미(주부·43)씨는 요즘 3개월째 '마라톤' 중이다. 송미씨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 박석균(48·회사원), 아들 상혁(15·전곡중 3년)군, 딸 희정(10·미산초 3년)양도 함께 뛰고 있다.

거실 TV 치우고 2천여권의 서재로 바뀌  
이미 6만쪽 돌파... 생각 깊어지고 성적 올라

송미씨 가족은 마라톤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밥상머리에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이들은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맘 가집이 신중해지며, 상상력도 풍부해졌다. '달리기'를 하는데, 성적이 올라간다고? 물론, 아니다. 송미 가족이 참가한 마라톤은 광주일보와 광주교육청이 마련한 '제1회 빛고를 독서마라톤 대회'다. 이들은 3개월 동안 책 4만2천195쪽을 읽는 대회 '폴코스'에 도전했다. "아이들은 책을 가까이하는 부모의 모습

을 그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책임기 습관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송미는 대회 참가에 앞서, 거실 부위부터 바꿨다. TV가 주인공이던 거실은 2천여권의 책이 가득한 '서재(書齋)로 변신했다. 소파도 치우고 큼직한 탁자를 거실 한가운데 들여왔다. 그리고 틈만 나면 온 가족이 거실로 나와 책을 읽었다. 송미 가족은 지난 9월 15일 독서 마라톤에 참가하면서 하루 평균 2~3권의 책을 읽었다. 대회 마감을 하루 앞둔 14일까지 읽은



송미씨 가족이 서재로 꾸민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출했다. 신간도 매달 10권 이상 구입해서 왔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탓에 출장이 잦은 남편 박씨도 3개월 동안 30여권이나 읽었다. 처음엔 교육에 관한 책부터 시작해 건강, 경제 등으로 점점 관심 분야를 넓혔다. 요새 좋은 글귀가 있으면 메모해 왔다가 아이들에게 읽어주거나 편지를 쓰기도 한다. 응석받이였던 딸 희정양도 독서에 빠진 뒤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어휘력도 풍부해지고, 작문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학원에 전혀 다니지 않지만, 지난 8월에는 3천500자를 알아야 하는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도 여유있게 땀다.

독서로 기초를 다진 상혁군은 중학교 전학년 내신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드는 우등생. TV보거나 컴퓨터 게임보다 책 읽기를 더 좋아한다. '해리포터'처럼 어른들의 도움을 없이 오래 친구끼리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는 '야무진 꿈'을 키우고 있다. 한편 제1회 빛고를독서마라톤대회에는 송미 가족 등 865가족을 비롯 해 모두 8천756명이 참가했다. 대회 주최측은 참가자들이 제출한 '마라톤 일지'를 평가해 개인·가족·단체 등 부문별로 1~3등을 뽑아 이달 중에 시상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나원침 (7384) 김중두



순천교육청 워크숍 말성

중학교 원서 접수 마감날 전직원 자리 비워

순천교육청(교육장 신태하)이 평일인 14일 '워크숍'을 간다며 대부분의 직원이 자리를 비워 말성을 빚었다. 특히 이날은 중학교 원서 접수 마감일인데다 최근 신·구 도심 중학교 배치 문제로 일부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텅 비어 연발 기강해이가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했다. 순천교육청과 순천시민 등에 따르면 신태하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 50여 명은 이날 오후부터 경남 통영의 한 리조트로 '워크숍'을 간다며 자리를 비웠다. 이때문에 교육청 대표 전화와 교육장 부속실, 관리과 등 대부분의 실·과에 직원이 없어 전

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고, 일부 과장급 인사는 휴대전화 통화도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업무마비' 현상마저 보였다. 더구나 내년도 중학교 배치와 관련해 연향·금당지구 초등학교 220여명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야단법석인 상황이고, 이날이 중학교 원서접수 마감일인데도 교육청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민원인 문모(47)씨는 "교육청 직원들이 평일에 업무를 보지 않으면 민원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대낮 도심 화재 광동동부소방서 대원들이 14일 오전 11시30분 북구 누문동 Y물류센터의 불을 끄고 있다. 이날 화재로 4층 건물 3개 층 286㎡가 전소하고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플라스틱 통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천7백만원의 피해가 났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화त्म에 노래방 방화 2명 숨져

서구 금호동서... 내연녀와 돈 문제로 말다툼

내연녀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50대가 지하 노래방에 불을 질러 내연녀 등 2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했다. 13일 밤 9시 15분경 광주시 서구 금호동 U노래방에서 불이나 주인 송모(여·44)씨와 손님 김모(57·경기도 부천시)씨가 연기에 질식사해 숨지고, 같은 건물 3층에서 대피하던 박모(여·25)씨가 부상당했다. 이날 화재는 송씨와 내연 관계인 이모(52·무직·광주시 서구 금호동)씨가 화त्म에 지른 방화(放火)였다. 이씨는 이날 노래방에 찾아왔다가 송씨가 "2년 전 빌려간 돈 2천500만

원을 갚아라. 능력도 없으면서 왜 빌려갔느냐"고 말하자 격분해 이불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를 켰다. 순간 "평"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나, 내부 95㎡ 중 50㎡가 불이 났다. 불이 나자 노래방에 있던 김모(56·화순군)씨 등 4명은 빠져나왔으나, 내실에 있던 송씨 등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사했다. 이씨는 방화 후 자신의 렉스터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다 방화현장에서 10km 가량 떨어진 광산구 신가동 J 아파트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격투 끝에 붙잡혔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목포 50시간 단수 시민들 고통

수도관 이설공사 급수재개 시한 연장

목포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관로 이설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시민들이 심각한 물부족 현상으로 고통을 겪었다. 14일 목포시와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무안군 삼향면 임성~일로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로 인해 이 구간에 설치됐던 주암댐 상수관 이설공사가 실시되면서 하당 신도심 4개 지역과 대양동 일부를 제외한 목포시내 전지역에서 지난 12일부터 수도를 공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공사가 애초 예정보다 늦춰지면서 13일 오전 9시로 예정됐던 급

수재개 시한이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애초 예정대로 13일까지 단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시민들은 미리 받아놓은 생활용수가 떨어지는 등 커다란 불편을 겪었다. 전남도소방본부는 목포지역에 소방차 50여 대와 100여 명의 인원을 투입, 화교와 병원, 복지시설 등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물과 시설을 중심으로 소방용수 260여을 긴급 공급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단수 조치 해제 시한이 연기되면서, 미리 받아 놓은 물이 떨어진 시민들이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1억 주고 건설사주 납치 지시

국제PJ파 전 간부 기소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건설사주 공모(47)씨 납치사건과 관련, 범행을 교사하고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폭력조직 국제PJ파 전 간부 여모(53)씨를 폭력(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전 9시20분경 광주시 남구 국제호텔 사우나에서 건설사주 공모(47)씨를 납치하도

록 부두목 조모(48)씨와 조직원들에게 범행 경비로 1억500만원을 제공하고, 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여씨는 지난 1991년 범죄단체 결성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공채의 사주를 받아 "국제 PJ파 실제 두목은 여씨"라는 탄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해 자신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30대 선물 딜러 지하철 투신 자살

14일 오전 8시57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5호선 여의도역에서 모 유명 선물회사 직원 최모(38)씨가 선로에 떨어져 진입하던 열차에 치인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소방서 관계자 및 역무원들에 따르면 열차가 들어오는 승강장 입구에 서 있던 최씨가 갑자기 진입하던 방화행 열차(5540호)쪽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목격자들과 CCTV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최씨가 열차 앞으로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숨진 최씨의 직장 동료들은 최씨가 자살이 아니라 사고로 변을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필뉴스

노래방 방화 사건 현장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용기 뽐내다 익사' 지자체 일부 책임

술에 취해 용기를 과시하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 발생한 익사사고라 해도 안전시설이 미비했다면 국가와 자치단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4일 2005년 영산강에서 익사한 이모(당시 19세)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불복, 나주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시로 만든 독 주위에 철조망, 안전선 등 차단장치나 경고판이 미비했던 점 등을 이유로 나주시에 대해 이씨의 가족에게 총 5천2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영산강 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와 하상골짜공사, 팻목 타기 행사 등을 위해 임시 독을 만들어 평소보다 수심을 깊게 만든 나주시에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국가와 나주시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눈 내리고 기온 뚝

주말인 15일 광주·전남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오전 한때 비나 눈이 조금 오겠다"고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4도로 예상되지만,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또 "낮 기온은 5~10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비나 눈이 그친 후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아침에는 매서운 겨울 추위가 계속되겠다"고 전망했다. 휴일인 16일에는 구름이 조금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돼 나들이 하기에 좋겠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3~4도가량 떨어진 영하 6~영상 4도로 예상돼 출근길엔, 낮 기온은 전날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침 눈발 12월 15일 (음 11월 6일) 전국날씨. 광주: 비/눈 후 갠 3~8°C, 목포: 비/눈 후 갠 4~8°C, 여수: 구름 조금 2~8°C, 완도: 구름 많음 3~9°C, 구례: 비/눈 후 갠 2~8°C, 해남: 구름 많음 2~9°C, 양흥: 구름 많음 2~9°C, 고흥: 구름 조금 -1~10°C, 순천: 구름 많음 2~8°C, 영광: 비/눈 후 갠 2~8°C, 진도: 비/눈 후 갠 4~9°C, 전주: 구름 많음 0~7°C, 남원: 구름 많음 2~7°C, 흑산도: 구름 많음 5~7°C.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2.5m, 만바다=서~북서풍 파고 2.0~2.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만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5:21 썰물 < 10:36, 18:00 썰물 < 23:24, 여수 밀물 < 12:33 썰물 < 05:51, 18:49. <table border="1"><tr><th>날짜</th><th>16(일)</th><th>17(월)</th><th>18(화)</th><th>19(수)</th><th>20(목)</th><th>21(금)</th></tr><tr><th>날씨</th><td>☀</td><td>☀</td><td>☀</td><td>☀</td><td>☀</td><td>☀</td></tr><tr><th>최저/최고</th><td>0/8</td><td>-1/8</td><td>-1/7</td><td>-2/8</td><td>0/7</td><td>-1/8</td></tr></table>